

연구논문

##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가족구조의 변화: 바우만의 문제의식과 루만의 인식론을 통한 접근\*

김미경\*\*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 혼재되어 있는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의 ‘동시적 비동시성’에 주목하고 가족의 구조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친밀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대갈등의 문제를 전근대적 조부모와 근대적 부모, 탈근대적 자식 세대의 소통의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세대 간 소통이 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유체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꼭 ‘소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고체적 근대’의 강박을 더 문제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대체할 수 있는 루만 체계이론의 체계/환경-차이이론을 통해 소통개념을 접근하고자 한다. 바우만의 ‘실패한 근대의 프로젝트’라는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족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루만의 인식론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루만의 인식론, 친밀성과 사랑,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 리퀴드 러브, 실패한 근대성의 프로젝트

\* 이 연구는 2017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논문을 읽고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mkkim@gwangju.ac.kr)

© 2017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문제제기

올해 만 91세로 작고한 유대계 폴란드 사회학자 바우만(Bauman)은 현대의 특징을 ‘유동성’ 또는 ‘액체성’으로 정의한다. ‘액체근대’, ‘리퀴드 러브’ 등 그의 유동성과 액체성에 대한 논의는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우만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액체성으로 설명하고 단단한 고체적 근대와 구분하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일국 단위의 관계를 넘어선 국제적 교류가 가능해지고, 노동의 형태 역시 평생직장, 전일제 노동에서 시간제 근로, 유연제 노동 등으로 바뀌어 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진정 유동적인 ‘액체근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메일(Email)과 SNS 매체를 통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전 세계의 그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한 현대인들은 여전히, 아니 더욱 더 외롭고 사랑을 욕망한다. 어쩌면 그것은 바우만의 진단처럼 ‘유대 하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숙명일지도 모른다(바우만, 2013a).

바우만의 글쓰기의 매력은 『리퀴드 러브: 사랑하지 않을 권리, 현대의 우울과 고통의 원천에 대하여』 번역자의 서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모더니티-포스트모더니티라는 역사적 연속성에 기반 한 문제설정이나 헤겔-마르크스라는 식의 보수-진보라는 축에 따라 설정된 문제들에 따라 사유하는데 익숙해 온 우리에게 바우만 식의 사유는 낯설 수밖에 없다”(바우만, 2013a: 14). 지극히 ‘고체근대’의 사회학적 사유의 틀을 가지고 있던 본 연구자 역시 바우만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루만의 체계이론 역시 입문어의 어려움이 따른다.<sup>1)</sup> 근대의 ‘유럽적 인식론’에 훈련된 사회학도로서는 따라가기 힘든 그의 사유체계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가족 안에서의

1)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미경(2016: 241-266)을 참고할 수 있음.

세대 간 소통문제를 친밀성을 화두로 바우만의 사회학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루만의 인식론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성을 넘어 탈근대<sup>2)</sup>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왔지만, 본 연구자는 우리 사회에 혼재되어 있는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의 중층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sup>3)</sup>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대갈등의 문제를 전근대적 특징을 가진 조부모와 근대적 부모, 탈근대적 자식 세대의 소통의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세대 간 소통이 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유체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꼭 소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고체적 근대”의 강박이 더 문제로 보인다. ‘고체적 근대’의 강박 속에서 소통은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공감능력을 중시한다. 그러나 루만의 소통 개념은 비판이론 전통의 하버마스식 의사소통의 개념과 다르다. 어느 한 체계가 정보-통보-이해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한 그 체계는 소통의 구조 하에 있는 것으로 루만은 파악한다. 이것은 하버마스 식의 ‘공감(Empathie)’적 의미와는 다른 맥락에 있음에 분명하다. 루만은 사회를 개인들이 아니라 소통이 구성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그동안 사회학에서 인식주체로 여겨왔던 인간을 배제하고 사회의 작동체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체계이론(Theorie sozialer Systeme)을 구축한다(Luhmann, 1984). 본 연구는 루만이 분석한 사랑의 의미론을 통해 친밀성의 구조변동이 가족체계의 구조변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탈현대’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사회학자들도 있지만, 본 연구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 현대(Gegenwart)이므로 근대성에 대한 논의에서 탈현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김미경·오세근(2014: 157-173)을 참고할 수 있음.

3)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가족에 관한 연구방법론을 분석한 글로 김미경(2013: 105-135)을 참고할 수 있음.

## 2. 개념적 논의: 루만에 있어 사랑과 친밀성

### 1) 가족체계의 소통매체로서 ‘사랑’

바우만은 “사랑과 죽음에는 고유의 역사가 없다. 인간적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뿐이다”라고 얘기한다. 그에게 있어 현대인들이 사랑과 죽음의 연관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헛수고일 뿐이다. 따라서 죽는 법을 배울 수 없듯이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거나 피할 방법도 없다고 진단한다. 즉, 사랑과 죽음은 다만 때가 되면 찾아올 뿐이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바우만은 사랑과 죽음을 경험에 빗대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학습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결코 두 번 경험할 수 없는 사건으로부터 ‘다음번에는 제대로 할’ 방법을 배울 수 없다”고 말한다(바우만, 2013a: 33-35). 예전에 했던 사랑의 경험을 현재의 사랑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마지막 승리한 전투에서 사용한 방식을 계속 써먹는 것으로 알려진 장군처럼 어떤 행동을 선례와 결부시키길 고집하는 사람들 또한 자멸의 위험을 떠안고 문제를 끝없이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바우만, 2013a: 39).

우리는 이 비유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적 현상이 중첩되어 있는 오늘날의 가족구조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관계를 관찰해보는다면 가족관계가 보다 분명해지게 될 것이다. 즉 한 사람과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중시하는 사람은 바우만식으로 표현하면 고체근대적 사고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한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자고 맹세했다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며 섹스리스 부부가 생

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더 이상 당혹해 하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탈근대적 액체근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체근대적 사랑의 의미론에 붙들려 있는 현대인들의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족 체계의 구조변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연구자는 루만의 체계의 의미론적 구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랑의 의미론 변동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루만은 사회체계(Societal System)<sup>4)</sup>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계층적 분화에서 기능적 분화로 재구축되었다고 정의하고, “사회의 고유한 재생산을 지속시키고 행위와 행위가 계속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의미론이라는 관념의 자원에 심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사랑의 의미론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Luhmann, 1982). 루만은 의미론을 소통의 주제 저장고인 문화 중에서 보존가치를 획득한 것이라고 보기에 사랑이라는 소통매체<sup>5)</sup>의 의미론적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은 가족체계의 구조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사회학적 과제라 할 것이다.<sup>6)</sup>

4) 루만은 social system과 societal system을 구분하고 있기에 많은 루만 저서를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한 동양대 이철 교수님의 권유에 따라 social system은 사회적 체계로 societal system은 사회체계로 번역하였다.

5) 루만은 소통매체로서 사랑, 진리, 권력, 화폐 등을 글, 인쇄, 전자매체 등의 확산매체와 구별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소통매체” 혹은 “성공매체”로 부르기도 한다.

6) 루만은 기존사회학의 “구조화”라는 개념 대신 “과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구조와 과정은 동시에 발생하며 상보적으로 작용한다. 구조/과정 프레임이란, 특정한 사건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와, 그러한 구조를 작동을 통해 변환시키는 특수한 사건들의 공동작용의 반복을 뜻한다. 그래서 구조는 사건의 발생 개연성을 높이며, 사건은 그러한 조건에서 하나의 선택을 실행한다. 즉 과정을 실행시킨다. 소통을 예로 들면, 이중의 우연성 같은 맥락적 상황이 구조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에 처하여 소통이 발생할 개연성은 높아지며, 소통은 그러한 조건에서 하나의 선택을 실행한다”. 따라서 루만에게 있어 “구조/사건” 프레임은 “구조/과정” 프레임과 같은 의미이다(이철, 2016: 100). 이중의 우연성 같은 맥락적 상황이 구조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에 처하여 소통이 발생할 개연성은 높아지며, 소통은 그러한 조건에 선택을 실행한다. 예컨대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차를 마시자고 함으로써 소통을 개시하고, 이 소통이 만들어진

우리는 흔히 사랑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시도한다. 그러나 “50억의 심리적 체계와 50억의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루만의 표현처럼(Luhmann, 1990: 54), 하나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흔히 정의내리고자 하는 ‘하나의 사랑’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50억 개의 사랑의 형태를 하나의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바우만의 지적처럼 승리한 전쟁의 전략을 계속 씹먹으려는 장군의 헛된 노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50억의 인구가 존재한다면, 물론 현재는 작고한 루만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50억 가지 형태의 사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우만이 사랑을 죽음의 개념에 비유해 설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루만에게 있어 사회적 체계(Soziales System)는 체계가 환경과 자신을 구별하여 지시하는 작동의 이어집이기에 루만의 체계이론은 체계/환경-차이이론을 통해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 재생산되는지에 관심의 초점이 있다. 따라서 루만은 사랑을 감정이나 감정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상징적 코드(7)로 다룬다. 루만은 사랑을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소통매체로 파악하며, 체계구조에 의존하는 문제해결방식의 하나로 이해한다. 이는 다시 말해 루만이 사랑을 감정을 다루거나 감정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거나 인과관계 안에서 정당화 하거나 또는 인간의 신체기관이나 의식 체계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인간배제의 사회학’이라고까지 불리

---

맥락(구조)속에서 초대받은 사람 역시 다시 다음 만남을 초대할 경우 소통이 이어진다. 소통은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다음번의 만남이 제안되지 않는다면 후속소통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중단되게 된다.

- 7) 루만은 상징적 코드를 “매우 비개연적인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코드”라고 정의한다(Luhmann, 1982: 9). 소통을 감정적 교류로 보지 않기에 루만의 사회학은 감정이 배제된 인간학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루만은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현상에 집요하게 천착하지만, 소통의 영역인 사회체계 분석에 있어 생각의 영역인 심리적 체계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는 루만의 체계이론에 있어 세계는 우연의 산물이기에 복잡하고 우연적인 세계에서 질서의 유지는 의미형성과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매우 복잡하고 우연적인 이 세계를 대안이 풍부한 하나의 선택영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선택과 동기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장치들(Einrichtungen)이 전제되며, 바로 이 장치들을” 루만은 소통매체라고 부른다(Luhmann, 2008: 13). 따라서 사랑은 주관적 세계에 사는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장치로서 소통매체 중의 하나이다. 루만에게 소통매체는 진리, 권력, 화폐, 예술 등과 같이 구체적인 구조나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으로 개념화 된다.

근대적 친밀성에 기초한 ‘사랑’은 루만에게 중요한 소통매체이다. 학문은 진리, 경제는 화폐, 정치는 권력의 소통매체를 갖듯, 가족체계의 소통매체는 사랑이다. 그리고 루만은 사랑이 진리나 권력이나 화폐의 역할을 무한정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소통매체들도 단지 제한적으로만 사랑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루만은 “최고의 권력자가 최고의 부자인 것도 아니며 권력자란 이유로 특별한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다. 또한 사랑은 진리와 상관없는 오히려 더 허구적인 세계를 창출하고 권력자나 아버지들의 명령에도 개의치 않으며 예술은 자연과 언어의 법칙을 조롱하기까지 한다”고 표현한다. 이어 루만은 “매체에는 본질적으로 사회구조적인 조건들이 내재하는데, 이 조건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능에 적합하고 사회의 증대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형식으로 사랑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건들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런 분리는 매체들의 기능적 특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매체들 안에는 감정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조건들, 사랑의 기능에 상응하고 그러한 상승된 사회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해주는 형식들로 사랑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건들이 담겨있다”(Luhmann, 2008: 26-27).

‘사랑을 제도화’한 가족체계의 구조변동을 고찰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점은 루만에게 있어 소통매체인 ‘사랑’이라는 의미론<sup>8)</sup>의 변동에 주목하는 것이다. 루만에게 있어 사회는 개인, 즉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 즉 사안으로 이루어진다(Jahraus, et al., 2012). 즉 루만에게 있어 학문적 관심은 사람이나 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체계의 작동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랑이 제도화된 형태인 가족은 사회적 체계로서 작동하기에 루만은 가족체계의 분석에 있어 사랑하는 사람의 의식체계가 아니라 가족을 재생산하는 체계의 작동을 소통으로서 분석한다.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랑하는 이들 사이의 사랑의 맹세는 그들의 생각보다 쉽게 깨지고 시간과 함께 변한다. 소통매체로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지만 사랑의 의미론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거나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맹세는 지켜지기 힘든 것이다.

사랑이 새로운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의미가 구별과 지시의 작동과정 속에서 선택되지 않은 잠재화된 저쪽 면의 발현이다. 루만은 이것을 역설이라고 부른다. 현재적 선택을 통해 작동에서 배제된 것은 다음 순간에 언제라도 다시 현재화될 수 있는 상태로 잠재화되었을 뿐이기에(이철, 2016: 105), 의미는 보편 개념으로서 세계와 체계들 사이를 매개하기에 주체가 들어설 자리를 대체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매체로서 사랑의 의미변동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안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쪽 면을 선택했다고 좋을 것도 없고, 선택하지 않은 저쪽 면에 대해 유감스러워 할

8) 의미론(Semantik)을 루만은 “소통의 반복을 통해 공고화되는 특정한 의미 형식들”이라고 칭하고 의미처리 사건으로서의 소통과 다른 한편의 의미형식으로서의 의미론으로 구분하고, 이 의미론의 개념을 “문화(Kultur)” 개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재론이나 관념론적 접근을 거부하는 루만은 문화의 개념을 의미론으로 대체함으로써 주체가 세계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는 세계와 의미를 매개했던 주체의 자리에 세계와 체계를 매개하는 의미로 대체함으로써 세계-주체-의미의 세계-의미-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다(이철, 2016: 97-100).



필요도 없다. 선택하지 않은 저쪽 면은 구별-지시 과정 속의 선택에 의해 언제든지 가시화될 수 있고 소통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역설 때문에 사랑하기(Loving)는 계속 소통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사랑하는 대상이 변할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역설로서 잠재되어 있다.

루만에 따르면 신분적 관계를 넘어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이항코드가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후반 청혼을 거절할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18세기말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해졌다. 커뮤니케이션의 연쇄가 일어나 하나의 사회적 체계가 창발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안에서의 우연한 선택의 결과이며,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바로 이 ‘이중의 우연성의 독립분화’를 통해 성립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이항코드의 매체로서 사랑은 인쇄의 발달과 출판시장의 성장으로 일반화된 매체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루만은 연애소설의 출판을 통해 사랑의 코드가 폭넓게 보급되고 독서를 통해 사랑의 방법과 감정이 모방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Luhmann, 2008).

## 2) 사랑의 의미론 변화를 통해 본 친밀성의 구조변동

현대인들의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사랑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 루만은 그의 저서 『열정으로서의 사랑』(Liebe als Passion, 1982)에서 친밀성의 코드화라는 부제를 달고, 사랑의 의미론 변화와 사회구조변동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루만에게 있어 사회구조 변동은 계층적 사회에서 기능적 사회로의 분화이기에 계층적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두 사람만의 친밀감에 기반한 열정적 사랑은 사회가 기능적으로 분화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기능적 사회에서 친밀성이 추구되는 이유로 루만은 첫째, 공동체

적 억압이 사라진 둘만의 관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가 정치, 경제, 법, 학문, 예술, 종교 등으로 기능적으로 분화됨으로써 “개별 인격은 사회의 어느 한 하위체계에만 정착할 수 없게 되며, 그에게만 고유한 사회적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고유한 개인’으로 자각하게 된 현대인은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안에서 공명”하기를 원하며,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추구한다(Luhmann, 1982: 14-19). 그래서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성과위주의 사회에서 면대면 관계가 더욱 힘들어질수록 현대인들은 확대된 SNS 가상공간을 통해서라도 친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한다.

루만은 사랑의 의미론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상적 사랑’, ‘열정적 사랑’, ‘낭만적 사랑’을 구분하였다. 이 사랑의 개념들은 서로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부여를 통해 변형된 것이라고 루만은 말한다. 17세기까지는 귀족부인과 용감한 기사와의 불륜도 정당화되는 중세적 ‘이상적 사랑’이 지배하나 청혼을 거절할 ‘결정의 자유’가 생기면서 열정적인 사랑으로 의미론이 변한다.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사랑을 구하는 ‘열정적 사랑’에서는 더 이상 이상적 대상의 속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사랑한다’고 루만은 말한다(Luhmann, 1982). 열정은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고통스런 사랑의 역설을 견뎌내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힘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적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없고 파괴적이기에 독일 낭만주의의 시작과 함께 낭만적 사랑의 의미론으로 대체된다. 루만은 그의 저서 『열정으로서 사랑』에서 열정을 과도함과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열정적 사랑의 과도함을 억제하고 파트너의 개인적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지속되는 낭만적 사랑은 사랑-결혼-섹스 또는 사랑-섹스-결혼이라는 규범 속에서 반복된다(정성훈, 2011a: 249).

계층적 사회에서 기능적 사회로 분화되면서 이상주의적 대가족형태는

부부 들의 친밀성을 중심으로 한 낭만주의적 핵가족으로 정비되었다. “분명히 이제 더 이상 특정계층에 고유한 속성이나 덕이 있다고 주장되지도 않으며 이런 것들이 사랑을 통해 보상받지도 못한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고유한 세계 속에서 개인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Luhmann, 1982: 172). 그러나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섹스파트너를 발견하거나 결혼상대를 찾는 것은 오히려 쉬울지 모르지만 친밀관계를 위한 파트너를 찾아 “묶어두기”는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Luhmann, 1982: 197). 그러나 루만은 사랑의 의미론에서 일어난 친밀성의 코드변화를 다룬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의 마지막 장 ‘상호침투체계로서의 사랑’에서 “사랑을 위한 사랑이라는 관념”만큼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Luhmann, 1982: 258). 사랑의 의미론이 변할 뿐이다. “친밀관계 안에서의 모든 소통은 소통불가능성으로 인도된다.” 그것은 상호침투체계가 상이한 체계들을 하나로 통일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재생산과 타자재생산이 체계의 맥락 하에 분리된 채로 작동하지만 “상호침투관계가 체험과 행위를 규제”하기에 소통이 단절되지는 않는다(Luhmann, 1982: 217-223). 즉,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의 체험과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낭만적 사랑을 지키려 하는 것이 근대적 가족제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애인의 모든 체험과 행위는 사랑/무관심 혹은 정직한 사랑/부정직한 사랑과 같은 도식 아래서 끊임없이 관찰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질적 속성과 비본질적 속성이라는 낡은 차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새로운 종류의 보편주의가 정식화된다”(Luhmann, 1982: 85). 그리고 루만은 사회적 체계는 개체적 인격이라는 체계준거를 전제로 하기에 “한 번에 한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코드의 규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분과 계층의 장벽 안에서 이상적으로만 추구되던 사랑이 신분을 초월하여 열정적 사랑을 거쳐 결혼을 통해 안정을 추구했던 낭만적 사랑으로

사랑의 의미론이 변동된 이후 주요기능체계의 탈분화 현상 속에서 사랑 역시 포함과 배제라는 메타코드의 영향을 받게 된다.<sup>9)</sup> 실제로 사랑이 안정을 포함하기 위한 전략으로, 배제되지 않기 위한 계산을 동반하는 관계로 변화자 자신들의 관계를 회의하는 연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자리에는 액체성과 유동성이 채워지고 있다. 루만의 진단대로 사랑의 의미론의 변동은 사회구조, 특히 가족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서는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의 ‘리퀴드 사랑’이라는 명제를 통해 가족체계의 구조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고체적 사랑에서 유동적 사랑으로 이동하는 친밀성

#### 1) 혼종하는 3세대 가족의 ‘동시적 비동시성’

많은 사회학자들은 근대의 개인주의화가 친밀성의 구조변동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기든스, 1996; 벡·벡-게른샤임, 1999; Hochschild, 2003). 친밀성의 구조변동을 분석하고 있는 루만은 열정적 사랑을 계층적 사회에서 기능적 사회로의 분화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다. 서구적 근대화를 거친 한국 사회도 역시 계층적 신분사회에서의 이상화된 사랑을 넘어 자유연애에 기반한 열정적 사랑으로 사랑의 의미론이 변동되었고 열정적 사랑의 과도함은 낭만적 사랑을 통해 근대적 가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루만의 해석을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한국사회에는

9) 이에 대해 정성훈은 루만이 정치의 도덕화, 법의 정치화, 학문의 금전화 등 주요 기능체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기능적 분화가 침식당하는 탈분화현상을 현대성의 위기로 파악하였다고 해석한다. “현대사회의 탈분화 현상에 대해 더 이상 분석하지 못하고 사망한 루만은 이러한 맥락에서 친밀체계가 공공화되거나 돈, 권력, 진리와 같은 사랑 아닌 것들이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위기로 파악했다”(정성훈, 2011a: 251).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특징되는 유동적 근대로의 사회변동과 함께 근대가족의 친밀성에의 구조변동 역시 초래되고 있다.

바우만은 ‘근대의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근대 국민국가의 통제체제의 실패로 인한 자율화, 탈규율화를 근대성 프로젝트의 실패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바우만은 “근대성이 끝나고 탈근대성이 나타나거나 근대성을 몰아내고 탈근대성이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근대성을 벗어나는 것이 탈근대성이라고 보았다(백승대, 2008: 9). 근대적 한국 가족의 친밀성은 결혼관계 안에서 성애적 사랑에 근거한 친밀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재생산 및 정서적 안정의 기능을 중시한 것이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욕구보다 가족의 안정을 중시하는 가족주의를 결과하였다(백진아, 2007). 그러나 루만이 지적한 ‘상호침투관계가 체험과 행위를 규제하는’ 가족주의 하의 한국사회 역시 개인주의화와 함께 개인의 선택에 따른 파트너와의 소통과 성적교감은 더욱 중요해져 가는 역설이 작동한다(백·백-계륜사임, 1999).

열정적 사랑의 과도함을 넘어와 서로의 관계를 제도적인 틀 안에 공고화하는 낭만적 사랑은 점차 액체성으로 구조변동하고 있다. 바우만이 탈근대적 특징으로 보고 있는 액체근대성은 가벼움, 유동성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한국사회에서는 IMF 구제금융 시기를 지나오면서 ‘유연화’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되었다. 창조, 혁신과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현 시대적 흐름은 이 액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불안정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액체근대의 이 불확실성을 바우만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위기에서 찾는다. 즉, 그동안 국가가 해왔던 사회갈등의 중재자, 경제규제의 주체, 안전보장자로서의 ‘고체 근대적’ 기능을 상실한 ‘국가 없는 국가주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바우만·보르도니, 2014). 한국사회 역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정치와 권력이 분리된 ‘국가 없는 국가주의’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들은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고체성을 지나 액체적 근대의 특징을 맞고 있다.

Y세대라 불리는 베이비부머의 자식들은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인터넷 세대이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참여적이어서 어떤 일에도 Yes라고 대답하는 세대이고 또한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질문하는 세대라 해서 Why 세대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 Y세대들은 서로 얼굴을 보고 직접 질문하지 않는다. 주로 SNS를 통해 소통한다. 이들은 스타벅스에 함께 모여 앉아 카톡으로 대화하는 세대이며,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누르고 몇 개의 '좋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세대이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와는 달리 청소년기부터 소비의 주체였으나 또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88만원 세대'이기도 하다. 프레카리아트(Prekariat)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우리사회는 '구이역 19세' 비정규직 청년을 통해 경험하였다.

현재 한국사회는 한국전쟁을 겪었고 보리고개를 경험했던 조부모 세대와 전쟁의 꼬트머리에 태어나 경제성장기의 중추역할을 했던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부모세대 그리고 SNS를 통해 소통하는 Y세대가 다함께 '소통'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3세대가 혼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전통과 근대와 탈근대적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비동시성이 '촛불'과 '태극기부대', 그리고 '일베'와 '메갈'이 함께 존재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Y세대라 불리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조부모세대의 이상적 사랑과 부모세대의 낭만적 사랑을 유동적 사랑으로 대체하는 친밀성의 구조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 2) 현대사회 친밀성의 구조변동: 고체적 사랑에서 유동적 사랑으로

이혼율 증가, 단독가구의 확산, 친족제도의 약화 등으로 대표되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의 기능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지 오래 되었다(백승대, 2008). 개인들의 국가, 가족, 친족, 지역공동체와의 끈이 느슨해져가고, 바우만의 표현대로 “가상적 관계의 연결짓기와 끊기”가 일상화되어가는 ‘액체 근대’를 살아가는 오늘날(바우만, 2009), 가족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루만의 지적과 같이 근대적 ‘체험과 행위의 규제’를 통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족은 ‘개체적 인격’이라는 체계준거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재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평생 한 사람만을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할 수 없게 된 ‘리퀴드 러브’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 명절이면 집에 가기를 꺼리는 비혼의 남녀가 늘고 있다.

조부모와 부모세대의 고체적 근대성이 한국사회의 가족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유동적 근대의 속성을 가진 손자녀 세대의 친밀성은 온라인 데이트를 통해 구조변동하고 있다. 루만의 친밀성 개념을 가지고 온라인 데이트를 분석한 한 석사논문에서 연구자는 “비인격적 친밀성”이 가시화되는 “휘발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양진선, 2016). 익명의 비인격적 공간에서 이성을 찾는 남녀가 갈구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친밀성이다. 이제 (여성)사회학자들은 이 낯설고 거북한 친밀성의 실체를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 가상의 공간에서 익명성을 전제로 친밀성을 추구하고 있는 남녀 스스로에게 초차 ‘비정상적’, ‘변태적’, ‘위험한’ 관계로 받아들여지는 이 ‘비인격적 친밀성’과 ‘휘발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랑은 점차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하나의 소통매체로 작동하고 있다.

서구의 사회학자들은 이미 온라인상의 데이팅을 통한 친밀성의 구조변

동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솔트, 2008; 일루즈, 2013). 독일의 사회학자 벡 부부는 이러한 현상을 『장거리 사랑: 사랑은 지독한 일상적인 혼란 속편』에서 “지구적 친밀성”, “익명적 친밀성”으로 분석한 바 있다. “장거리사랑의 비육체성과 인터넷 만남이 보장하는 익명성은 사랑을 찾는 행위의 낭만성을 고양시킬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제동장치를 풀어버릴 수도 있다”(벡·벡-게른샤임, 2012: 91). 사회학자들은 서로 마주보고 앉은 사람들조차도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하는 오늘날 친밀성의 작동구조를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한국 사회 역시 PC의 보급과 인터넷의 확산을 통해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 속에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형태의 친밀성에 대해 타부시하고 병리화하며 고체적 근대의 낭만적 사랑을 여전히 이상화한다.

친밀성의 구조변동을 사랑의 의미론의 변화, 즉 코드 형식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는 루만에 따르면 사랑의 코드 형식은 중세 이상주의 시대의 ‘이상’에서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근대의 초입에서 시작된 열정적 사랑이 가지는 ‘역설’을 거쳐 낭만주의 시대에는 ‘문제’로 전환된다. 여기서 ‘문제’의 코드 형식은 규제로부터 벗어난 친밀성을 “찾고 형성해가는 것”을 뜻한다(Luhmann, 1984: 197). 이 과정을 루만은 “자율성에 대한 반성 또는 자기 지시라는 형식”으로의 변화로 파악하고 있다(Luhmann, 1984: 51). 친밀관계는 자기지시적 체계로서의 자율성을 갖고 타 체계로부터 독립분화 되어 “사랑하기의 사랑하기”라는 재귀성을 갖는다(Luhmann, 1982: 174-175). “사랑의 의미론은 친밀관계의 독립분화를 이끌면서 동반해왔다. 처음에는 사회제도로서 결혼에 맞섰고,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스스로 맺는 결혼을 고려하게 된다.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묶이는 것은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루만은 파악한다(Luhmann, 1982: 199). 낭만적 사랑 이후 비인격화된 친밀성은 문제화라는 코드의 형식을 통해 새롭게 소통되는 사랑의 의미론으로 변동하고 있다. 실제로 데이팅 사이트를 통



한 남녀관계는 친밀성의 구조변동을 초래하고 있다(양진선, 2016: 33).

오늘날 ‘회발적 관계’의 ‘의명적 친밀성’으로 변화된 남녀의 사랑에 대한 젠더적 접근은 루만의 ‘성별 비대칭성’의 개념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 사랑의 코드가 ‘이상’에서 ‘열정’, ‘열정’에서 ‘문제’로 전환되는 동안 친밀체계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대칭적 관계”로, “관계의 자율성”으로 변화한다. 그 과정은 여성이 친밀관계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받는 것에서부터 인격적 개체로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과정, 그리고 이분법적 젠더 차이의 의미가 개인성을 잃게 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단지 남성과 여성의 권력 불평등이 평등을 지향하며 발전해왔다는 여성운동의 정치적 주장에 루만은 선을 긋는다(Luhmann, 1982: 172).

루만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친밀관계를 독립분화 시키고 사랑의 의미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한다. 루만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은 “특정 계층의 고유한 속성이나 덕목이 더 이상 주장되지도 보상받지도 못하며, 중요한 것은 각자의 고유한 세계 속에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남녀의 비대칭성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의 비대칭성으로 유지된다. 남성은 사랑하기를 사랑하며, 여성은 남자를 사랑한다. 이를 통해 여성은 한편으로는 더 깊고 더 근원적으로 사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더 구속적이고 덜 성찰적으로 사랑한다. 비록 여성들이 먼저 사랑함으로써 남성들의 사랑도 가능해지지만, 체계-환경, 차이의 동일성(Einheit)으로서 낭만주의는 여전히 남성의 경험에 머무른다. 이를 통해 사랑하기의 사회성은 자기의식적인 자아형성 기회의 증대로 간주된다”는 점에 루만은 주목한다(Luhmann, 1982: 172). 따라서 낭만적 사랑이 기대하는 ‘통일된 자아’나 ‘현대사회에서 분열된 정체성을 반성을 통해 복원하는 자아’의 개념 역시 남성의 경험에 머문다고 루만은 지적한다.

이를 루만은 “양성평등이 강조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성적 체험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평등의 강조

는 역설적이게도 성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이를 반영하는 사랑의 의미론이 남성적 방법으로 해석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으로 지향된 행동들의 독립분화가능성에 대한 관념도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의 입장에서 유지된다(Luhmann, 1982: 204). 루만은 이러한 입장들로 인해 페미니즘은 체계의 작동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sup>10)</sup> “인간의 가장 높은 능력은 더 이상 보편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를 자기지시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보는 루만의 인식론적 관점은 ‘액체근대’를 살아가며 여전히 낭만적 사랑의 코드에만 머물러 있길 원하는 인식적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Luhmann, 1982: 172).

익명채팅 등을 통해 Y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친밀성의 구조변동을 우리 사회는 ‘비정상’으로 낙인한다. 낭만적 사랑이 여전히 정상성으로 작동하는 우리 사회에서 익명을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친밀성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 “변태적인 사람”, “이상한 사람”, “모르는 사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정상적’ 친밀관계의 인간상인 “멀쩡한 사람”,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신원이 확인이 되는 사람”, “오랜 친구”와 구별짓는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 속에서 온라인으로 친밀성을 시도하는 ‘유동적 근대’의 채팅어플 이용자 스스로도 익명 채팅을 자신의 경험으로 의미화하기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경우만을 “다른 것”으로 분리하는 현상이 가능해진다(양진선, 2016: 106).

10) 루만의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성에 대한 논의는 김미경(2016: 241-266)을 참고할 수 있음.

#### 4.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해체와 재구성의 사이에서

바우만의 ‘각자 존재하고 홀로 소멸해 가는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라는 표현은 현대인들의 불안을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바우만, 2013b). 바우만은 근대의 유럽적 인식론에 기반한 사회학의 전통에서 추구되어 오던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서로 연대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불안과 위협을 그저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다. 바우만의 ‘유동적 근대’, ‘리퀴드 러브’라는 명제는 루만의 체계/환경-차이이론의 인식론과 같은 맥락에 위치한다. 열정적 사랑의 열정의 과도함은 낭만적 사랑으로의 진입과정에서 상대의 ‘체험과 행위의 규제’를 통해 지속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파트너를 묶어두려는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근대적 ‘고체성’은 우리의 삶이 임시적이고 비정규적이며 유연화되면서 친밀성을 함께 나눌 공간의 부재, 이동하는 사랑, 액체근대의 특징을 갖는 ‘리퀴드 러브’로 변동하고 있다. 결혼한 2쌍 중 1쌍이 이혼하고 1인가구가 현재의 가구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가하는 비혼과 저출산 문제 등은 채팅 앱을 통해 ‘비인격적 친밀성’의 ‘휘발적 관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의 ‘리퀴드 러브’를 “파트너를 교체하는 지속성 없는 임시적인 사랑”이라고 낙인찍을 이유는 없다(엄기호, 2010). 이러한 형태의 사랑을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낭만주의적 엄숙함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포함/배제의 메타코드에 의해 사랑이라는 코드가 무력화되는 낭만주의 이후의 사랑의 대안으로서 기든스의 ‘합류적 사랑’이나 숄트의 ‘실용적 사랑’이 제안되기도 한다(정성훈, 2011a: 254). 정성훈은 낭만적 사랑이 남성 중심주의로 비판받았다면 마을공동체에서 남성은 육아와 교육에의 참여를 통해 일대일 친밀관계의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본다(정성훈, 2011b). 그

러나 파트너간의 협상과 성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기든스의 합류적 사랑을 “사랑이라는 코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정성훈은 사랑의 독립분화를 가능하게 했던 비합리성에 주목하고 ‘익명적 대중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해 줄 우정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서의 ‘친밀공동체’가 “낭만적 사랑의 힘겨움”을 대신해줄 것이라 제안한다(정성훈, 2011a: 254).

고체 근대적 ‘낭만적 사랑’을 이상화하는 사람들은 액체 근대의 ‘리퀴드 러브’를 수용하기 힘들어 한다. 그들은 그들만의 집을 짓고 자신의 사랑을 단도리 하기 위해 서로의 ‘체협과 행위를 규제’하지만 이는 이미 실패한 ‘근대성의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낭만적 사랑 이후의 사랑’에 대한 모색의 힘겨움’은 바로 이 실패한 근대성의 프로젝트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이들의 힘겨움으로 보인다. 루만의 지적대로 사랑의 변화가 아니라 사랑의 의미론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퀴드 러브’로 나타나는 사랑의 의미론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가 친밀관계를 시작하기 어려움”에 주목한 루만은 “전통적인 사랑의 의미론에서 남아있는 극단적인 역설화 뿐만 아니라 열정과 과도함은 포기할 수 있으나,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세계에 열려 있고 동시에 고유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라는 신인본주의적-낭만주의적 개념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사랑을 위한 사랑이라는 자기준거적 관념”이다. 계속해서 루만은 의식은 소통되지 않기에 “투명한 관계”란 의식의 투명함이 아니라 “소통의 투명함”이라고 말한다. 친밀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통의 투명함’이라 할 것이다. “투명함이란 체계와 체계의 관계 속에서만, 소위 체계와 이 체계가 구성하는 환경의 차이에 기반하여 존재하며, 사랑만이 스스로 이런 투명함일 수 있다.” 따라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동적 사회에서 ‘친밀성이라는 이름으로 파트너를 찾아 묶어두기’란

녹녹치 않으며, 그래서 사랑의 코드형식은 이상에서 역설을 거쳐 문제로 전환된다(Luhmann, 1982: 223). 그러나 사랑은 그 '투명함'으로 인해 유동적 사회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루만의 진단대로 '사랑을 위한 사랑을 하는' 소통매체로서 계속 기능할 것이다. 따라서 낭만주의적 사랑에 기초한 가족은 해체되더라도 새로운 친밀성을 바탕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그것이 '리키드 러브'나 '장거리 사랑'이든 또는 '익명적 친밀성'이든 뭐라고 이름 붙여지든 말이다.

## 5. 맺는말: 연대를 위한 소통, 그 가능성에 대하여

“소통은 의식들의 우회로서 생각의 영역인 두 심리적 체계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독자적인 의미처리 방식이다. 소통 역시 의식작동과 중첩되지 않는다. 우리는 말을 하거나 들음을 통해 소통에 참여하면서도, 잠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음에 말할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의식은 의식대로 소통은 소통대로 자기 길을 찾아간다. 여기서 소통이 정보로부터 통보를 구별하는 작동을 통해, 인간의 행위체계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체계를 형성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독자적인 체계는 통보가 정보에 근거한다는 사실성으로 인해 잠재적인 행위능력을 가진다. 정보단계에 의도가, 통보단계에 행동이 작용했다고 보면, 정보로부터 통보를 구별해낸다는 것은 소통 체계가 행동만 선택할 수 있지, 그 행동의 의도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 순간 잠재화된 정보는 다음 소통에서 통보를 통해 사회적 체계에 진입할 수 있다”(이철, 2016: 107). 이는 그 사람의 진심은 현재의 행동일 뿐이고 현재의 행동이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낙인찍을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언젠가는 잠재적 차원에 머물던 저쪽 면이 이쪽

면으로 현재화될 역설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미는 잠재화와 현재화의 차이에서 존재한다. 루만의 소통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친밀성의 구조변동 속에서 사랑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낭만적 사랑의 종착점이 대부분 결혼이었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아이를 낳아 핵가족을 유지하는 일이 녹록치 않지만, 가족은 근대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지탱되어 왔다. 바우만이 표현한 ‘근대성의 실패한 프로젝트’는 바로 움직이는 것을 묶어 두려는 고체성에 근거한 권위주의와 가부장성에 있다. 근대 가족은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고체적 특징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유럽, 특히 독일사회에 일반화되어가는 장거리 사랑에 기반한 “세계가족은 다양한 모델의 짜깁기라 할 수 있다. 한 가족 안에서 사랑과 섹슈얼리티, 결혼, 가족에 관한 주류관념과 하위관념 사이의 모순들이 특정한 인물들 — 예를 들면 세속적인 딸과 엄격한 근본주의자 아버지, 반쯤 세속적이고 반쯤 종교적인 어머니, 그리고 서구에서 태어난 반서구적 근본주의자 아들 — 의 모습으로 ‘동시적 비동시성’의 형태로 존재한다. (...) 이 소우주 속에는 전근대성, 제1근대성, 제2근대성이 서로 뒤섞여 있다. (...) 세계가족은 전통과 현대, 근거리와 원거리, 친숙함과 낯섦, 평등과 불평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한데 섞는다”(벡·벡-게른샤임, 2012: 120-122). 이는 비단 독일과 같은 유럽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다문화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언젠가 다가올 자화상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을 겪은 조부모, 베이비부머인 부모, Y세대 자식들이 각기 다른 심리적 체계를 가지고 소통하는 ‘동시적 비동시성’ 속의 한국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체계 중 하나로 작동 중에 있다. 그러나 ‘구 유럽적 인식론’을 벗어나고자 했던 루만이 바라본 사랑의 의미론이 시사하는 바대로 낭만주의적 친밀성에 기반한 근대적 사랑은 유동적 근대로의 진입과 함께 그 의미론이 변하고 있다. 유동적 근대에서 ‘실패한 근대성의 프로젝트’는 권

위주의적, 가부장적 규제의 의미상실이며, 거기에 기반 한 가족공동체의 해체이다. 따라서 루만이 주목한 '선택한 이쪽면의 현재화를 통해 선택하지 않은, 또는 다음에 선택될 잠재된 저쪽면의 존재의 역설'은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하겠다.

“연대하지 않는 개인들의 우울과 고통” 속에서 “사랑하지 않을 권리”를 얘기하는 바우만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한다는 비판이론적인 당위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바우만, 2013a). 바로 이 지점에 바우만은 루만과 맞닿아 있다. 우리사회 역시 루만이 소통을 통한 사회의 작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시한 체계/환경-차이이론에 따라 소통가능성과 새로운 가족으로의 재진입 가능성을 숙고해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계에서 친밀관계를 시작하는데 있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세계에 열려 있고 동시에 고유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라고 루만이 주목한 것처럼, 이제는 낭만주의적 가족의 근엄함에서 벗어나 유동적 개인들의 연대를 위한 소통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스스로 작동하는 준거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보-통보-이해를 통한 소통의 재진입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해석을 내려놓고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먼저 관찰하는 것이다(김미경, 2016).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변하지 않겠다는 사랑이 변했다고 상대를 원망하기보다는 의미가 변동한 사랑을 통과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다양한 욕구와 의무를 위한 연대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바우만의 지적대로 ‘연대하지 않는 우울과 고통’ 속에서 ‘사랑하지 않을 권리’를 선택하면 될 일이다.

## 참고문헌

- 기든스, 앤소니(1996),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황정미 옮김, 서울: 새물결, Giddens, A.(1993),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김미경(2013), “가족복지의 근대성과 전근대성”, 『보건복지교육연구』, 제2권, 105-135쪽.
- \_\_\_\_\_ (2016), “루만 체계이론의 여성학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소고”, 『젠더와 문화』, 제9권 2호, 241-266쪽.
- \_\_\_\_\_ · 오세근(2014), “동양사상적 관점에서 본 노동과 사회복지”, 『사회학적 관심의 동양사상적 지평』, 서울: 다산출판사, 157-173쪽.
- 바우만, 지그문트(2009),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서울: 강, Bauman, Z.(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13a), 『리퀴드 러브: 사랑하지 않을 권리, 현대의 우울과 고통의 원천에 대하여』, 권태우·조형준 옮김, 서울: 새물결, Bauman, Z.(2003), *Liquid Love: On the Frailty of Human Bonds*,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13b),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우리는 각자 존재하고 나는 홀로 소멸한다』, 홍지수 옮김, 서울: 봄아필, Bauman, Z.(2001), *The Individualized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 보르도니, 카를로(2014), 『위기의 국가: 우리가 목도한 국가없는 시대를 말하다』, 안규남 옮김, 서울: 동녘, Bauman, Z. and C. Bordonni(2014), *State of Crisis*, Cambridge: Polity Press.
- 백승대(2008), “현대사회를 보는 바우만의 시각: 탈근대성과 유동적 근대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6권 1호, 277-303쪽.



- 백진아(2007), “한국 기혼여성의 가족 경험: 가족주의와 변형적 친밀성의 결합”, 『담론 201』, 제10권 3호, 241-269쪽.
- 백, 울리히 · 엘리자베트 백-게른샤임(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배은경 · 권기돈 · 강수영 옮김, 서울: 새물결, Beck, U. und E. Beck-Gernsheim(1990),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_\_\_\_\_ (2012), 『장거리 사랑: 사랑은 지독한 일상적인 혼란 속편』, 이재원 · 홍찬숙 옮김, 서울: 새물결, Beck, U. und E. Beck-Gernsheim(2011), *Fernliebe - Lebensformen im globalen Zeitalter*, Frankfurt am Main: Suhrkamp.
- 숏트, 크리스티안(2008), 『낭만적이고 전략적인 사랑의 코드』, 장혜경 옮김, 푸른숲, Schuldt, C.(2005), *Der Code des Herzens: Liebe und Sex in den Zeiten maximaler Möglichkeiten*, Frankfurt am Main: Eichborn.
- 양진선(2016), “익명채팅에서 나타나는 ‘비인격적 친밀성’의 구조 분석: 랜덤 채팅어플 ‘뚝단배’의 여성이용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엄기호(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서울: 푸른숲.
- 이철(2016), “의미처리 사건으로서의 소통과 형식으로서의 의미론”, 『사회와 이론』, 통권 제29집, 95-121쪽.
- 일루즈, 에바(2013),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의 사회학』, 김희상 옮김, 서울: 돌베개, Illouz, E.(2011), *Warum Liebe weh tut: Eine soziologische Erklärung*, Berlin: Suhrkamp Verlag.
- 정성훈(2011a), “사랑 이후 혹은 현대 이후의 힘겨움: 친밀관계와 현대사회에 대한 루만의 연구로부터”, 『문학과 사회』, 제24권 4호, 243-255쪽.
- \_\_\_\_\_ (2011b),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 『철학사상』, 제41권, 347-377쪽.
- Hochschild, A. R.(2003), *The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Life*, Oakland: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hraus, O., A. Nassehi und M. Grizelj, et al.(2012), *Luhmann - Handbuch: Leben - Werk - Wirkung*, Stuttgart und Weimar: J. B. Metzler.
- Luhmann, N.(1982), *Liebe als Passion. Zur Codierung von Intimität*, Frankfurt am Main: Suhrkamp.
- \_\_\_\_\_ (1984), *Soziale Systeme: Grundriss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_\_\_\_\_ (1990), *Soziologische Aufklärung 5: Konstruktivistische Perspektiven*, Opl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_\_\_\_\_ (2008), *Liebe: Eine Üb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논문 투고일: 2017.10.31, 심사 확정일: 2017.11.23, 게재 확정일: 2017.12.05)

〈Abstract〉

##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s of Intimacy and Family: An Approach to Baumann's Question and Luhmann's Epistemology

**Kim, Mikyong\***

This paper focuses on the 'simultaneous asynchrony' of pre-modernit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in society and examines problems of intimacy that can explain family structure. The researcher attempts to identify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a problem which is emerging as one of the main social issues of current society. That is to say,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between pre-modern grandparents, modern parents, and the post-modern filial generation. The reality of non-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is not the problem. Rather, the 'solid modernity' obsession with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with totally different thinking systems is the issue. Therefore, viewing intimacy within the family as the most essential social system showing sharp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he structural changes of intimacy and family structure through Luhmann's system theory. Based on the question of Baumann's 'failed modern project', the researcher asks what family problems we face today, and how we can address this problem using Luhmann's epistemology.

**Key Words:** Luhmann's epistemology, intimacy and love, Bauman's liquid modernity, liquid love, project of failed modernity.

---

\* Professor, Department of Welfare Policy, Gwangju University